박영훈 기성전 4연패

백홍석에 2-1 승, 응씨배 탈락 한 풀어

박영훈 9단〈사진〉이 응씨배에서 탈락한 한을 제19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4연패로 풀었다.

한국기원은 16일 "박영훈이 도전자 백홍석 6단을 2-1로 물리치고, 기성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해 4년 연속 우승자가 됐다"고 밝혔다.

박영훈은 지난 7일 서울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마지막 경기인 도전 3번기에서 도전자 백홍석을 242수만에 불계로 꺾었다.

타이틀을 지킨 박영훈은 GS칼텍스배, 후지쯔배, 맥심커피배를 포함해 4관왕에 올랐다. 현재 7관왕인 이세돌에 이어 다관왕 순위 2위다.

박영훈은 마지막 경기에서 실리 위주의 포석으로 집을 키워나갔고, 중반 이후에는 백홍석의 파상적인 공격을 유연하게 막아냈다. 박영훈은 세가 불리하다고 느낀 백홍석의 무리한 공격의 허점을 노려 좌하변의 대마를 잡아내며, 승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내 대표적인 '싸움닭'인 백홍석은 큰 승부를 맞아 긴장했는지 잇따라 실수를 하며 승리를 내줬다. 백홍석은 한국바둑리그에서 2년 연속 울산 디아채의 주장으로 뽑히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06년 신예 기전인 SK가스배서 겨우 한 번 우승했을 뿐 그동안 메이저 기전에서 2번, 신예 기전에서 2번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도 도전자 결정전에서 강적 이세돌 9단을 꺾어 기세를 올렸지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기성전은 우승 상금이 1천800만원으로 다소 규모는 작지만 모든 기사가 참가하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이 뜨거운 대회이다.

박영훈은 지난 2005년 동갑내기 최철한을 꺾고 생애 첫 타이틀을 따냈다. 이후 안조영, 최철한, 백홍석의 도전을 차례로 물리치며 연패 기록을 4로 늘렸다. 한 때 기성전을 휩쓸었던 이창호 9단(11연패)에 이은 최다 연패 기록이다.

박영훈은 대국이 끝난 뒤 "응씨배 8강전에 진출한 국내 4인방 가운데 나만 떨어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기성전 타이틀을 방어해서 정말 기쁘다"며 "기성전 타이틀은 3회 정도 더 지키고 싶고, 꾸준히 성적을 내서 국내 랭킹(3위)도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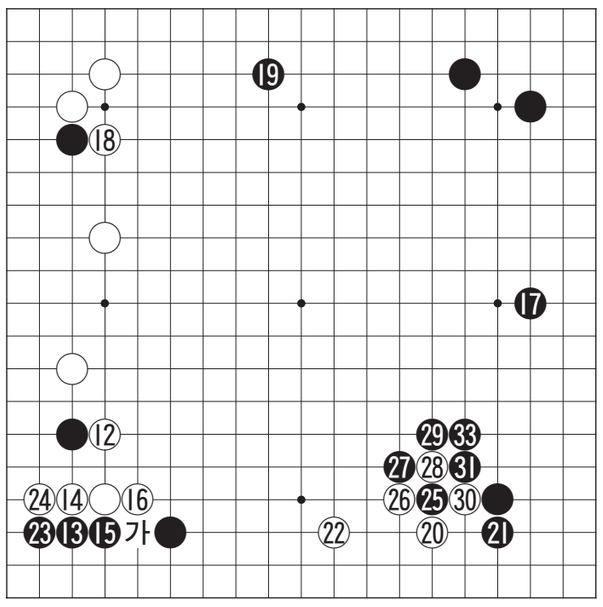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시간 6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준속기기전으로 열렸다. 본선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도전자를 가려 3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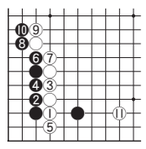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최강전 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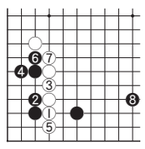
빠름과 느림 2보(12~33)

白 박문흥 7단 黑 송홍석 7단





〈참고도 1〉



〈참고도 2〉

흑 13으로 삼삼에 쳐들어 왔을 때가 선택의 기로였다.

박문흥 7단은 백 14로 막아 가장 알기쉽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1'의 백 1쪽에서 막는 수도 많이 두어진다.

그러면 백 9까지 선수하고 11로 하변을 공격하게 된다. 또 흑 4로 '참고도2'의 4로 내려서서 6으로 선수를 잡고 8로 하변을 먼저 달려갈 수도 있다.

박문흥 7단은 상대가 연구생출신의 신진고수임을 감안하여 가장 쉽고도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 박 7단은 특기가 끝내기. 장기전으로 가면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초반은 흑 19까지 송홍석 7단의 빠른 발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백 18로는 '가'로 뚫는 수도 생각할 수 있으나 박문흥 7단은 여전히 느린 듯 24까지 두텁게 두어가고 있다.

흑 25로 붙인 수가 우변을 키우기 위한 상용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흑 33까지는 예정된 코스로 다음의 백의 착수가 어려운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 아마바둑도 세계 정상

'이창호배 亞아마바둑대회'

남녀개인전·페어전 휩쓸어

아마 바둑인들의 축제인 제2회 전북은행장배아시아아마바둑선수권대회와 제10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지난 11일 전주시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아시아아마바둑대회에서 한국이 남녀개인전과 페어전을 모두 휩쓸었다.

남자 개인전에선 김남훈 아마 7단이 대만의 예강팅 아마 7단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은 김미리 아마 4단이 대만의 린홍빈 아마 6단을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페어부문은 박종욱-박지영 조가 대만의 린쿤더-홍화수이 조를 따돌려 한국의 전 부문 우승에 대미를 장식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과 대만은 한국의 독주를 막진 못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4개국 7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열렸던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는 조민수 아마 7단이 김정환 아마 7단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6년에 이어 대회 두 번째 우승.

이창호 9단을 후원하는 고향 팬들의 모임인 '이창호 사랑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일반부, 여성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1천여 명의 선수와 바둑팬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혜연, 현미진 누르고 여류명인전 2회전에

조혜연 7단〈사진〉이 제10기 STX배 여류명인전에 출사표를 내던졌다. 조혜연은 지난 13일 서울 스카이 바둑스튜디오에서 열리 이 대회 본선 1회전에서 현미진 4단을 177수만에 불계로 누르고 승자조 2회전에 진출했다.

올해 10승7패로 다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조혜연은 이번 대회를 통해 후반기 대반전을 노린다는 기세다.

현미진은 이날 패배를 포함해 최근 5연패 늪에 빠졌으며, 패자조로 밀려나 이슬아 초단을 상대로 부활을 노리게 됐다.

루이나이웨이 9단의 여류명인배 5연패를 저지할 도전자를 선발하는 이번 본선 패자부활 토너먼트의 제한시간은 각자 30분 40초 초읽기 3회의 준속기전.

도전자를 정한 뒤 루이나이웨이와의 3번기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상금은 우승 1천200만원, 준우승 500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상 바둑 즐기며 일본 관광'

'오사카 바둑투어' 등 해외상품 잇따라

바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둑 관련 해외여행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자유투어'는 괌에서 열리는 '2007 한국바둑리그' 결승 리그를 관전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판매했다.

최근에는 '여행매니아'가 오사카 바둑투어(4박 5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사카행 크루즈를 타고 선상 바둑대회를 즐기는 여행 코스이다.

또 노영하 9단의 바둑 강의와 다면기(多面棋) 시범도 진행된다.

출발지인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까지 이동하는 데는 무려 18시간이 걸리지만 바둑 팬들에게는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아니다. 이동하는 동안 선상에서 바둑대회를 즐기기 때문이다.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오사카행 팬스타 페리가 매일 출항하며 승선 요금은 편도 12만5천~70만5천원.

출발은 22일(1차), 6월25일(2차), 9월 25일(5차). 문의 02-397-77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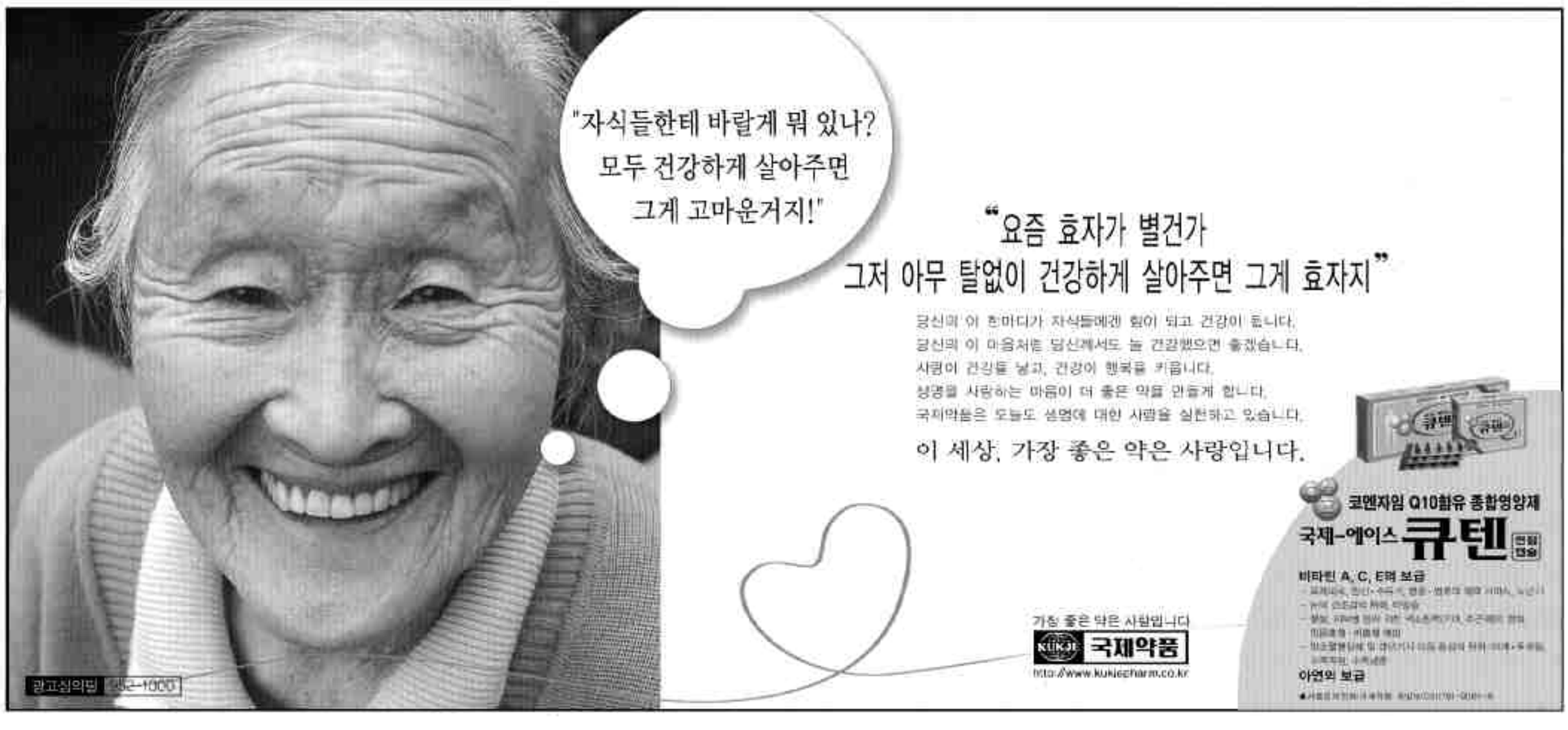
백홍석 프로기전 결선 '실낱 희망'

권오민 꺾고 탈락 위기 넘겨

백홍석 6단이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B조 리그에서 소중한 1승을 챙겼다.

백홍석은 지난 1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권오민 4단을 불계로 물리쳤다.

백홍석은 리그 첫판을 유창혁 9단에게 내줘 결선 진출이 불투명했었지만 이날 승리로 기사회생했다. 마지막 남은 이창호 9단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 경우 자력으로 결선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패를 안은 권오민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기전이다.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